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일주문 현판식

9월 28일, 대웅전 등서 봉행
상량보에 대행 선사 법어 새겨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9월 28일 일주문 현판식을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춘 스님)은 9월 28일 일주문 현판식을 봉행했다.

현판식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각 지원장 스님과 대중 스님, 박종수 안양본원 명예회장, 신현준 안양본원 신도회장, 이기정 수석부회장, 최종열 중부경남지원 신도회장 및 임원진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1부는 △예불 △개회사 △불교도의 노래 △삼귀의 △한마음선원가 △발원문 봉독 △청법삼배 △청법가 △입정 △대행 선사 영상 법문 시청 △음성공양으로 진행됐다.

이어 일주문 앞에서 현판식 화합재가 봉행됐다. 2부에서는 테이프 커팅과 본격적인 현판 제막이 이뤄졌으며, 경과 보고와 내빈 소개, 불사팀 선물 전달식이 진행됐다.

일주문은 전통 다포 양식으로 기둥뿐 아니라 벽면과 처마 밑에도 공포가 정교하게 배치돼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배흘림기둥과 둥근 활 모양의 보조 기둥으로 곡선미를 살렸다. 또한 둥글게 말린 포작 장식은 구조적 안정성과 장엄미를 더했다.

상량보에는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과 대행 선사의 법어 '걸림이 없어라'가 새겨졌다. 현판 글씨는 이번 불사의 도감을 맡은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직접 휘호해 의미를 더했다.

중부경남지원은 "일주문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자유인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상징하는 문"이라며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에서 "이번 일주문 불사는 혜춘·혜밀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의 원력이 모여 원만히 성취됐다"며 "기와 한 장, 벽돌 하나에도 불자들의 정성과 장인들의 노고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없는 문을 드나들던 신도들이 이제는 장엄한 일주문을 통해 환희심과 합장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불사는 혼자가 아닌 일체 만법·만불이 함께 이뤄가는 일"이라고 설했다.

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일주문은 말 그대로 한마음의 기둥"이라며 "이번 불사는 우리 마음속의 기둥을 다시금 굳건히 세운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고 나쁜 인연 모두가 나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의 자양분으로 삼아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은 "현판은 큰스님의 가르침인 '한마음 주인공의 삶'을 새긴 진리의 상징"이라며 "현판이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되어 많은 이들을 대장부의 길로 안내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중부경남지원장 혜춘 스님은 "오늘 고대하던 일주문 현판식을 봉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 덕분"이라며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인연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2년 마산지원 개원에서 시작된 중부경남지원은 올해로 33주년을 맞았다. 큰스님께서 이 도량의 불사터를 보시고 '주산신이 환영하고, 산 이름은 금산이며, 산 위에 오르면 불법이 처음 들어온 바다가 보일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큰스님의 발자취와 가르침이 서린 이 도량에서 수행·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최종열 중부경남지원 회장은 "일주문 현판식을 가능케 해 주신 큰스님과 모든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인연이 법의 인연으로 이어져 자유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어 일주문 불사에 헌신한 장인과 불사팀을 위한 이사장 혜수 스님의 선물 전달식이 진행됐다.

80돌 앞둔 법화종 '지역 상생' 발원

9월 28일, 지역 축제 개최
법화종과 영주 불자 한자리
직거래 장터 등 상생 눈길
관효 스님 "지역 불교 연대"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2026년 창종 80주년을 맞아 지역포교에 진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내년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지역과 함께하는 포교의 길을 새롭게 다짐했다.

법화종은 9월 28일 영주시 희방사역과 수철리 마을 일대에서 '죽령 옛길에서 마음을 나누는 체험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영주 희방사역은 폐역으로 문경새재(조령)와 더불어 옛 선조들이 이동하던 주요 고개길인 죽령에 위치해 있다. 희방사역 인근에는 법화종 백룡사가 있다. 불교계의 노력으로 희방사역에서 죽령주막까지 2.5km 길이 '죽령 옛길'로 복원되었으며, 수철리를 비롯한 지역의 경제 회복 중심이 되고 있다.

지역 상생 한마당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오전 죽령 옛길 및 백룡사 탐방을 시작으로 개회식, 걷기 명상, 무대공연과 문화한마당으로 이어졌다. 또마을 주민들의 특산품을 구매 가능한 직거래 장터도 마련되어 불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행사 개회식에는 우중에도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해 부산교구 종무원장 법명 스님, 강원교구 종무원장 송일 스님, 경주교구 종무원장 혜문 스님, 충북교구 종무원장 지성 스님, 김창교구 종무원장 송열 스님 등 각 교구 종무원장과 주지 스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부산교구 종회의장 수월 스님, 도영암 주지 보덕 스님, 추광사 주지 준재 스님, 경북교구 기획실장 해월 스님, 경주교구 성불사 주지 정광 스님, 보광사 주지 보관 스님, 충북교구 재무국장 삼보사 주지 수관 스님 등과 불자 5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룡사 주지 덕인 스님은 "백룡사는 지난 74년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중생과 함께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도량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개회 인사로 밝혔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법화종은 2026년 창종 80주년을 맞아 불교중흥의 법맥을 되살릴 계획이다. 오늘 죽령 옛길을 다시 잇는 걸음이 법맥을 되살리고 지역과 불교가 연대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미래불교 100년을 향한 포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정근 영주부시장은 "죽령은 역사적으로 영남과 관서를 잇는 교통로이자 문화 교류의 길이었다"며 "이번 행사가 영주의 문화적 자산을 되살리고 지역민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홍경 영주봉화사암연합회 회장, 법장 영주불교연합회 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지역 불교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의 의미를 강조했다.

행사 2부에서는 죽령 무쇠다리를 향한 걷기 명상이 진행됐으며, 3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출연한 연극 '무쇠다리', 오카리나·소리나눔 등 문화공연, 가수 홍인숙·추녹·권태민·김인옥 등이 참여한 동참가수 무대가 이어졌다.

법화종은 "이번 행사는 창종 80주년을 맞아 불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길을 모색하고, 주민과 불자가 하나 되는 포교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속에 뿌리내린 불교 전통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주=노덕현 기자

"법장 대종사 자비행 본받겠습니다"

수덕사, 법장 스님 20주기 추모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9월 29일 대웅전에서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원로의원 일면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방장 우송 스님은 법문에서 "법장 스님은 제자와 불자들을 큰 가슴으로 품으며 자비행을 펼치신 분이었다"며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제자들이 사랑과 정진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께서는 종단 안녕과 불교 발전, 나아가 세계와 나라를 위한 큰 뜻을 품고 살아오셨다"며 "제자들은 그 뜻을 받들어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며 그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동헌당 태현 대종사 42주기 추모다례

화엄사, 9월 25일 각황전 등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9월 25일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동헌당 태현 대종사 4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동헌문도회 대표 도실 스님, 화엄문도회 문장 종국 스님, 원로의원 종열 스님,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들이 동참해 큰스님의 뜻을 기렸다.

행장 소개에 나선 종고 스님은 동헌 대종사의 생애와 수행, 그리고 불교계에 남긴 큰 발자취를 되새기며 의미를 기렸다.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문도는 동헌 대종사와 문도 어른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전법과 포교,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모재에 함께해 주신 문도 어르신들과 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추모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부도전으로 이동해 동헌 스님의 부도와 탑비에 참배하며 큰스님의 공덕을 기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충주불교계, 호국위령재·문화축전

9월 27~28일 중앙탑서



충주불교계가 9월 27일과 28일 중앙탑 일원에서 '제18회 국태민안·호국영령 위령재'와 '제34회 중앙탑 탑돌이 문화축전'을 봉행했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타 스님)와 중앙탑탑돌이보존회가 주최·주관하고 충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해 나라의 평안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행사는 대북 타고와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삼귀의례, 보현행원, 반야심경 독송, 십바라밀 탑돌이 시연으로 이어졌다. 탑돌이는 십바라밀경진도를 따라 탑을 돌며 걸음마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서원을 새기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합회장 원타 스님은 "탑돌이는 충주의 역사와 불교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라며 "무수한 등불의 환희와 함께 경제와 문화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불교聯, 성거사지5층석탑 다례재

9월 25일 광주공원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9월 25일 광주 남구 성거사지5층석탑에서 '다례재 및 광주평안 기원대재'를 봉행했다.

보물로 지정된 성거사지5층석탑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전형적인 비보석탑이다. 석탑이 자리한 광주공원 일대는 예로부터 성거산(성구강)이라 불리며 거북이 모양의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봉행사에서 "성거사지5층석탑은 광주의 번영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이 이어진 보물"이라며 "선조들의 은혜와 공덕을 찬탄하며 광주의 평안과 남구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담양 용흥사, 지역민과 함께한 산사음악회

9월 27일 경내 특설무대서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9월 27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천년의 밥상' 사찰음식 만찬과 2부 기념식 및 무대공연, 신도 및 주민이 참여하는 노래경연으로 진행됐다.

주지 덕유 스님은 인사말에서 "용흥사는 전란으로 여러 차례 소실됐으나 최근 복원불사를 거쳐 지역 대표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음악회가 공동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삼론종, 불기 2569년 방생법회

9월 27일 문무대왕릉 앞서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9월 27일 경주 문무대왕릉 앞 바다에서 불기 2569년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혜승 스님, 총무원장 남륜 스님, 승정원장 진봉 스님, 종회의장 지경 스님, 교육원장 법지 스님, 전 총무원장 해불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법회가 봉행되기까지 경북교구 스님과 신도들의 보시와 시주가 큰 힘이 됐다"며 "함께한 모든 분은 곧 부처님"이라고 강조했다.

종정 혜승 스님은 법어에서 "방생은 단순히 물고기를 살려 주는 일이 아니라 불자 스스로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의 길"이라고 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광복 80주년 산사음악회

10월 26일 경내서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는 10월 26일 오후 1시 경내 일원에서 다음국악관현악단 초청 특별기획공연 '천년 고찰 내소사 그날이 오면'을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이 겪어 온 격동의 시간과 광복의 숭고한 의미를 음악으로 새기는 자리다. 또 미래와 세계로 힘차게 비상하는 부안의 비전을 담아낸다.

음악회는 △광복 △염원 △희망 △독립 △평화의 5개 장으로 구성되며,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서양 합창, 태권도 시범, 일렉트릭 기타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주지 재안 스님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리고자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국악 선율 속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